

21일 0시 중대장에 실탄 지급→오전 10시 부대원에 실탄 분배→오후 1시 집단발포→뒤늦게 “자위권 발동”

발포명령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듯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히자

뎀이벤엔 발포명령자 규명해야

1980년 5월 21일 0시 11공수여단 61, 62 대대 중대장들(대위)에게 실탄 지급, 21일 오전 10시께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분배됐다.(과거사 진상규명위 보고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군에서 실탄 지급의 의미는 곧 발포 명령이자 무자비한 살상작전의 신호탄이었다.

37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5·18 도청 앞 발포 명령자의 경우, 21일 국방장관실에서 있었던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강조 발언, 실탄 지급, 자위권 발동의 의미에 대한 정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명령자는 전두환으로 압축된다.

보안사령부가 만든 ‘제5공화국 전사’를 보더라도, 시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자위권 발동 결정 회의가 열렸던 국방장관실 회의에 전두환이 참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발포 명령자는 한층 더 뚜렷해진다.

◇정호용 “자위권 발동은 발포명령”= 정 전 사령관이 과거 검찰에서 자위권과 실탄 지급, 발포명령에 관해 진술한 발언은 5·18 발포명령자 규명으로 가는 열쇠다.

정 전 특전사령관은 1996년 1월 30일 “한마디로 말하면, 발포명령인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내려가고 실탄이 분배됐다는 얘기는 ‘발포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자위권 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5·18 특별 수사팀 검사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 전 사령관은 같은 조사에서 “자위권 발동은 ▲경고 후 3회 이상 정지 명령 ▲가능한 위험 발사 ▲급박하더라도 생명이 지장 없는 신체부위 사격 ▲선량한 주민 피해 없도록 유의하라고 돼 있는데 기능한다”라

전두환 자위권 발동 강력 주장

정호용 1996년 검찰 조사서

“자위권 발동은 곧 발포명령”

는 검사 질문에 “사실상 교전 상황에서는 하되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자위권 발동을 허가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공수부대 발포로 숨진 사망자들의 사체를 보면, 흉부·두부 관통 등의 총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위권 발동 요건대로 발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발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5공 전사와 5·18 관련자 검찰 진술(주영복 장관, 김준봉 장군) 등에서 정 전 사령관이 전두환과 함께 21일 자위권 발동 회의에 참석한 점, 5·18 당시 광주에 3차레나 내려가 공수여단장과 접촉한 점, 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발포 명령은 실탄 지급이 이뤄진 20일 밤 또는 늦어도 21일 오

전 10시께 내려졌다는 추론이 나온다.

◇전두환 지휘관 회의서 자위권 발동 주장=국방부가 지난 2007년 펴낸 과거사 진상 규명위 보고서에서도 발포명령자를 전두환으로 강하게 추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 국방장관실에서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한 발언을 진중재 당시 2군 사령관이 5월 21일에 수기로 작성한 문서에서다. 당시 문서에는 “장관 주영복, 총장 이희성, 사령관 진중재, 수경사령관 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합동 수사본부장 전두환~전 각하(전두환) : 초병에게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혔다.

‘5공 전사’에도 전두환이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 발동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담고 있다. 5공 전사에는 회의 시간은 언급돼 있지 않다.

서울지방검찰청이 펴낸 5·18 사건 수사 기록에 첨부된 5공 전사 사본을 보면 “(80년 5월) 21일 2군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진중재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 편으로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뵈

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고 적혔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계엄군은 형식적으로 자위권 발동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가 진행된 시간에 관해서는 오전 10시50분과 오후 4시30분(주영복 장관 검찰 진술·육군참모총장 동정 일지 등)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에겐 실탄이 분배(21일 오전 10시)된 이후가 된다.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세력이 5·18 도청 앞 집단발포 전 발포명령을 내리고 뒤늦게 형식적으로나마 자위권 발동을 결정해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층 수장고에서 5·18 당시 계엄군 총탄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은행 본점 유리창을 감시하고 있다. 5·18 기록관은 “옛 광주은행 본점(금남로 37) 8층 유리창의 파손 경위(탄환종류 등)를 밝혀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광주시 “전일빌딩 탄환 찾아내겠다”…추가감식 의뢰키로

국과수, 옛 光銀 본점 탄흔 감식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탄환을 찾는 작업이 추진된다.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이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광주시가 “탄환을 찾아내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가려달라”

고 추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을 세우면서다.

광주시는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한 군 헬기 공중사격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탄환 발굴을 추가 의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전일빌딩 10층 내부와 외벽 등에서 찾아낸 탄흔 180여 개에 대한 감정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탄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내렸다. 보고서는 150개 탄흔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 10층 내부에 전장 부근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광주시가 추가 의뢰할 경우 탄환을 찾아내 헬기에서 사용한 무기의 종류를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헬기 사격과는 별개로 헬기 기총소사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

해 5·18 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과수는 이날 광주시 금남로 5·18 기록관을 찾아 5·18 사료인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 고층(8층) 유리창 탄흔을 감식했다. 5·18 사료인 구명 뿔린 유리창 3점은 광주은행이 1997년 11월5일 금남로 37 본점을 이전하면서 광주시에 기증했다. 5·18 당시 탄흔이 생겼다. 국과수는 이날 중 감정 결과를 기록관 측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드들강 살인범 무기징역에도 광주지검 항소한 이유는

“반성 없으면 관용 없다” 극악범죄 경중

피고인도 무죄 주장 항소

“반성 없으면 관용도 없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6년 전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담’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무기수 신분이 때문에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법정 최고형으로 극악한 범죄에 경중을 올려야 한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환)는 지난 11일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들 배웅 노모 뺑소니 트럭에 치여 숨져

운전자 13시간만에 긴급체포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려고 집밖으로 나섰던 70대 노모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진도경찰은 17일 보행자를 차로 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치사)로 조모(55)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54분께 진도군 진도읍 진도동기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t트럭을 몰고가다 A(여·75)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농장 관리인인 조씨는 근무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4시간 가량 잠을 잔 뒤 귀가했다. 사고 당시 고리니를 진 출 앞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의 아들(53)은 “명절을 앞두고 홀로 사는 어머니를 보러 진도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 직장이 있는 목포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어머니가 배웅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1차선으로 달리던 A씨 아들의 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은 뒤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해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조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 섬에 숨어 있던 조씨를 사고 13시간만에 긴급체포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칠레 여행하던 교사

현지서 숨진 채 발견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인 A(50)씨가 지난 16일 여행사의 배낭여행 상품으로 장시간 버스를 이

용한 칠레 여행에 나섰다가 숨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다음달 3일까지 국외 자율연수 명목으로 학교장 확인을 받고 지난 2일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광주지검서 피의자 조사 받아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되고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50) 참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7일 칠레에서 13세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박 참사관을 소환해 피해자

가증이 제출한 증거자료, 방송촬영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 사실을 확인.

○…대검은 박 참사관의 주소지가 광주주에서 관할인 광주지검에 사건을 담당했는데 광주지검 관계자는 “박 참사관을 소환해 6시간가량 상세히 조사한 뒤 돌려보냈으며, 칠레와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콘텐츠,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 오후 3시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료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